

KTV

2014년 2월 17일

# 방송심의



기획편성부

프로그램		파워특강	
방송일자	2014. 2. 10. 16:05	시청률	0.003

### 【총 평】

<디자인으로 준비하는 100세 시대>세미나의 디맨드컨설팅 그룹 김광순 대표와 서울디자인재단 신윤재 팀장의 강연 내용을 녹화방송 했음. 김광순 대표는 <100세 시대를 위한 디자인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실버세대를 위한 일상 생활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해 주었음. 신윤재 팀장의 <전세대를 아우르는 100세 시대 디자인의 정책적 방향>은 서울디자인재단의 업무보고를 듣는 느낌이었음.

### 【구성 및 내용】

김광순 대표는 100세 시대가 몰고 올 산업 전반에 대한 변화를 조리있게 잘 설명해 주었으나, 신윤재 팀장은 서울디자인재단의 추진 사업을 나열해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근본적인 접근이 다소 부족했음.

프로그램		희망의 새시대	
방송일자	2014. 2. 11. 11:00	시청률	0.025

### 【총 평】

<이 시각 주요 뉴스>에 이어 영동지방 폭설 옛새째...도심 마비, 전북 익산 '고니' AI 고병원성 확진, <이 시각 국제 뉴스> 美 뉴욕·뉴저지주 '동해병기 법안' 입법 작업 본격화, <국민리포트> 웃고 떠들며 '퀴즈로 푸는 한국 고대사', '검은 달 항아리와 그 이후' 등으로 구성했음.

### 【구성 및 내용】

<집중 인터뷰>는 '소치 동계올림픽-스포츠 과학의 비밀'이란 주제로 송홍선 한국체육과학연구원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선수들이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올림픽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언급없이 종목별로 선수들의 메달 전망 등에 대한 이야기만 전달해 출연자와 사전 교감이 부족했다는 생각임. <여기는 세종>에서 이기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이 원고를 보고 읽는 영상이 그대로 방송됐는데 사전에 스텝들과 조율을 거쳐 촬영이나 편집시 어떻게 처리할건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임.

## 【자막오류】

여기는 세종에서 인터뷰어 이충연 기사를 소개하는 자막에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이충연 기자'로 표기하는 자막 오류가 있었음.

### ■ 여기는 세종 - 기후변화 · 에너지문제 적극 대응



### ▶ 네임수퍼 오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충연 기자

## 【참고사항】

<국민리포트>에서 인터뷰이의 이미지박스가 뉴스 아이템마다 크기가 다른데, 통일감 있게 처리하고, 하단자막과의 매치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프로그램	카메듀서의 映像美學		
방송일자	2014. 2. 11. 17:55	시청률	0.005

## 【총 평】

카메듀서의 影像美學이라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잘 살린 테마 선정 및 영상 처리가 돋보였음. 단, 이왕이면 방송시점을 설 연휴 전후로 잡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임.

## 【구성 및 내용】

한 땀 한 땀 살을 고르는 '연' 장인의 모습이 '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고, 특히, "6살 소년의 꿈이 60년이 지난 지금도 창공을 나는 모습"에서 작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음. "자연을 거스리지 않는다"는 '초양법'을 만드는 과정과 정신을 섬세하게 묘사한 부분 등, '영상미학'을 가시적으로 잘 보여준 영상 구성이 눈에 띄었음. 또한, 공방 실내에서 '리기태' 장인이 "행운을 듬뿍 담고 날아라!"라고 연을 날린 다음 컷이 야외에서의 연 날리는 컷으로 연결된 영상 구성이 매우 돋보였음.

프로그램	패러디팟! 라디오정책쇼		
방송일자	2014. 2. 11. 18:15	시청률	0.058

### 【총 평】

<신세대를 사로잡는 병역제도>를 주제로 <임평순이 또 뒀다!>, <행정개그를 아시나요?>, <정책은 노래를 타고>, <미녀와 야수의 정책대결> 등의 코너가 이어졌음. **콩트와 개그를 통해 딱딱한 정책을 쉽게 전하는 흐름이 집중력을 발휘하며 다소 산만했던 구성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며, 안정감을 찾는 느낌이었음.**

### 【구성 및 내용】

이번주는 병역제도에 대해서 설명해주었음.'신세대 군대'가고 싶은 군대'로 새롭게 변화하는 병역제도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고 체계적인 설명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음. 지난 회보다 산만함이 해소되어 안정된 반면 특기병 제도, 연고지 복무제 등은 설명적으로 안내해 구성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

프로그램	대한뉴스의 재발견		
방송일자	2014. 2. 11. 18:55	시청률	0.019

### 【총 평】

**소치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다다른 시점에 우리나라 빙상 스포츠의 시작과 발자취를 보여주며 동계올림픽의 우수한 성과를 기원하는 시의적절한 기획이었음.** 또한, 최초의 빙상경기를 소개하면서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 사실감을 높여주었음.

### 【구성 및 내용】

1972년 삿포로 올림픽부터 참가한 한국 선수단의 동계올림픽 참가의 역사를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까지 연계시킨 구성이 돋보였음.

경복궁 호수에서의 스케이팅, 이승만 대통령부부가 참관한 서울시민 빙상대회 등, 옛 흑백영상을 활용한 우리나라 빙상의 초창기 모습이 신선하면서도 향수를 일깨워 주기에 모자람이 없었음.

서울시민 빙상대회(방영일 1957년 1월 25일) 삿포로 동계올림픽(방영일 1972년 2월 12일) 등 자료영상 제공시 정확한 방영일시를 자막삽입한 점이 눈에 띄었음.

### 【참고사항】

화요일과 목요일은 18시 55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17시 55분에 방송되는 편성시간의 불규칙에서 오는 시청자의 혼동을 고려했을 때, 가급적 편성시간을 통일했으면 좋겠음.

프로그램	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		
방송일자	2014. 2. 12. 16:15	시청률	0.018

### 【총 평】

<아라우부대 - 필리핀에 희망을 심다>, <'거리'에서 '일터'로 - 노숙인들의 홀로서기>, <행복 호르몬 세르토닌! - '힐리언스 선마을' 체험> 등 3개의 아이টে을 완성도 높게 구성했음.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면서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잘 표현했음.

### 【구성 및 내용】

<아라우부대 - 필리핀에 희망을 심다>의 경우 이지수 기자가 필리핀 현지 취재를 통해 태풍 하이옌이 강타한 타나완시 복구 현장을 생동감있게 잘 담아냈음. 특히,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6.25 참전용사들을 찾아내 보은 차원에서 집을 고쳐주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음.

<'거리'에서 '일터'로 - 노숙인들의 홀로서기>는 노숙인들의 사례를 통해 노숙인 복지법 제정의 취지를 잘 표현했으며, 과거에는 노숙인이었지만 현재 환승 도우미, 잡지 판매원, 주변 이웃을 돕는 자활센터 조리사 등으로 재활한 사람들의 희망찬 모습을 보여주어 매우 적절한 소재 선정이었음. 특히, 자립에 성공한 노숙인의 "실패하는 와중에도 인생의 마무리를 멋있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생한 이야기는 노숙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행복 호르몬 세르토닌! - '힐리언스 선마을' 체험>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행복을 찾는 방법을 들을 수 있어 자성의 시간이 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선마을 자체를 홍보하는 듯한 구성과 이곳의 위치, 운영시간, 참여방법 등의 정보를 함께 알려주지 않은 구성이 아쉬웠음.

### 【참고사항】

체험 아이টে을의 경우 잘못 조명하면 그 곳을 홍보하는데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이 그곳에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프로그램		국민행복시대	
방송일자	2014. 2. 12. 17:00	시청률	0.012

### 【총 평】

<라이브 이슈> 및 <국민행복시대 - 지역이 미래다> 등 대담코너의 경우 보다 체감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주제선정 및 내용전개가 눈에 띄었음. 특히 <국민행복시대 - 지역이 미래다>의 경우, 대부분 자화자찬에 그치고 마는 '지자체 단체장'들과는 달리 진정성이 느껴지는 '김윤주 군포시장'의 비전 제시가 시청자들로부터 설득력을 얻기에 모자람이 없었음.

### 【구성 및 내용】

<라이브 이슈>의 경우, 올해 시행되는 노인기초연금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다룬 점이 눈에 띄었음.

<날씨예보>의 경우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소치'의 날씨를 알려줌으로써, 소치 동계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작은 배려가 돋보였음.

대담 코너인 <라이브 이슈>와 <국민행복시대 - 지역이 미래다> 사이에 <공공 일자리를 찾아라!>를 배치함으로써, 대담의 연속성으로 인한 지루함을 완화시켜 주었음.

프로그램		현장다큐 문화 행복시대	
방송일자	2014. 2. 13. 15:05	시청률	0.042

### 【총 평】

<김병종, 글과 그림의 발을 갈다>, <관광자원 다양화,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여기는 소치, 응답하라 소외종목!> 등, 신선하면서도 재치 넘치는 아이템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미지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시청욕구를 자극하기에 충분하였음. 특히 <여기는 소치, 응답하라 소외종목!>의 경우, '봅슬레이', '컬링', '스켈레톤' 등 비인기 소외종목 선수들을 다룬 점이 매우 바람직했음.

### 【구성 및 내용】

파격과 논란의 중심에 선 '화첩기행'의 작가 김병종 교수를 다룬 <김 병종, 글과 그림의 발을 갈다> 및 '소치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비인기 종목선수들의 애환과 꿈을 담은 <여기는 소치, 응답하라 소외종목!> 등 참신한 테마 선정이 돋보였음. 그러나 <관광자원 다양화,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의 경우, '승마체험'과 '딸기체험' 등 체험관광에 치중함으로써 '해외관광을 대체할 수 있는 관광자원의 다양화'라는 주제에는 다소 미흡했음.

### 【참고사항】

<김병중, 글과 그림의 발을 같다>의 경우 인터뷰 말자막이 없었는데, 무슨 말인 모를 경우를 대비해 있는 것이 바람직함. <관광자원 다양화,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와 특이한 관광지를 소개한다고 했는데, <말타기>, <딸기체험>은 대중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이템 찾기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프로그램		대한니우스의 '그때 그 사람'	
방송일자	2014. 2. 14. 16:05	시청률	0.031

### 【총 평】

정월 대보름이라는 시의성에 부합하는 주제 및 인물선정이 매우 좋았음. 특히 출연자인 심우성 소장의 '민속명절'에 관한 구수하면서도 정감있는 이야기는 물론, 겸손하면서도 귀감이 될 수 있는 인격적 깊이까지 보여줌으로써 재미와 감동을 함께 주었다고 생각됨.

### 【구성 및 내용】

대한니우스의 '그때 그 사람'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인물(민속학자 '심우성')과 주제(정월 대보름), 내용(세시풍습)이 조화를 이룬 기획 및 구성이 돋보였음.

정월 대보름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흥미와 함께 민속에 관한 지식을 제공해 주기에 모자람이 없었음. '쥐불놀이', '연날리기' 등의 민속놀이와 '부럼', '오곡밥' 등의 대보름 음식은 물론, '남사당 패'까지 이어진 우리 민족명절에 대한 이야기가 자공심까지 일깨워 주었다고 생각됨.

특히, 심우성 소장의 "민속놀이는 어느 편이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어 마음을 가다듬고 얼싸안는 놀이"라는 말이 공감은 물론 감동을 주기에다 부족함이 없었음.

프로그램		문화유랑 2,014km	
방송일자	2014. 2. 15. 21:00	시청률	0.029

### 【총 평】

'지역 문화를 발굴하고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프로그램' 기획이 참신했음. 특히, 문화유랑단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역동적으로 문화 현장을 소개할 수 있게 될 구성이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며, 첫회는 해남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자연스럽게 소개했음.

그러나, 문화유랑단의 문화적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너무 적어 아쉬웠고, **문화유랑단의 능력을 프로그램에 녹여내어 문화가 배어나는 프로그램으로 연출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짐.**

이와 함께 미션해결과 문제풀이에만 급급해 하지 않고 문화의 여유를 누리며 진행해야 하며, 등장인물들이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출연자들이 우왕좌왕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음.

**문화유랑 2,014km이라는 프로그램 제목에서 2,014km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프로그램 내에서 자연스럽게 풀어주어야 했음.**

### **【구성 및 내용】**

'문화유랑 2,014km'의 시작부분에서 문화유랑단 오디션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간략하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됨.

<땅끝 해남에서 시작되는 첫 문화유랑> 국악천재 김시원, 싱어송라이터 손서연, 기타리스트 김태일씨가 함께 해남여행을 떠났음. '문화유랑단'이라는 설정이 눈길을 끌었고 세 사람의 개성을 확실하게 드러내 줄 수 있는 장치들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시종일관 유쾌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은 이후 여행에 대한 관심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느낌이었음.

**'해남에서 고성까지 문화유랑 2014km'이라는 설명처럼 한 회가 끝나면 지도나 표를 통해 여행 완료를 표시해 줄 수 있는 구성이 있었으면 좋겠음. 또한, 다음회로 넘어가는 구성이 힘이 부족하고 밋밋한 느낌이었음.**

월동배추를 수확하고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강강술래를 함께 배워보는 등 다양한 모습들이 눈길을 끌며 흥미를 높여주었는데 문화유랑단과 해남군민과의 문화적인 소통은 다소 부족한 느낌이었음. 이와 함께 세 사람의 개성을 살려 줄 수 있는 작은 공연도 해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